

공산당의 <무신론>은 민족 문화를 훼멸시키는 독약 (련재—3)

3. 중공은 어떻게 전통문화를 전면 부정하였는가?

(1) '무신론'을 이용하여 중국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소멸

일찍 연안에 올때 모택동은 『연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에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관점은,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바로 계급 투쟁과 민족 투쟁의 객관 현실이 우리들의 사상 감정을 결정하였다.” “마르크주의를 학습하는 것은 우리들이 유물변증법과 역사적 유물론의 관점으로 세계를 관찰하고 문학예술을 관찰하려는 것이다.” 이로부터 ‘무신론’으로 전통문화인 ‘유심론’을 취소하였다. “문예는 지주 계급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봉건주의의 문예이다. 중국봉건시대 통치계급의 문학 예술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현단계 중국의 신(新)문화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는 인민대중의 반제국주의, 반봉건적인 문화”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통문화는 ‘봉건주의’, ‘통치계급’의 것이라는 라벨을 붙이고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문화가 바로 ‘신문화’라고 하였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예는 정치에 종속된 것이지만, 그러나 또 역으로 정치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문화는 반드시 수시로 공산당 정치를 위해야 하며 공산당 ‘유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강화를 발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한 ‘연안정풍’운동이 시작되었다. 중공은 연안에 있던 지식인들을 향하여 피비린박해를 시작하였다. 지식인들은 무조건 투항하였으며 자신을 혈뜰는 외에 기본적인 전통도덕을 무시하고 우물에 빠진 사람한테 돌을 던지듯이 서로 남의 약점을 리용해 괴롭혔다. 이때로부터

불량배와 톱펜프롤레타리아가 중국이라는 무대에 등장하였다. 1957년에 와서 ‘반우파’ 운동 때에는 55만명의 지식인들이 죄인으로 전락되었다. 그후 ‘문화대혁명’을 발동하였다. 매번 모두 전통 문화를 내걸고 동시에 지식분자들을 도살하고는 전국민으로 하여금 과거의 문화를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오직 전통문화가 하루라도 존재하면 중공 ‘무신론’의 정신통제에 위협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들과 전통 문화의 련결을 끊어버려 부단히 살인하고, 감금하고, 관리하고, 투쟁하고 비판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중들을 협박하였다. 이리하여 지식인들을 서로 싸우게 하면서 자신을 비천하게 만들도록 했으며, 중공의 필요에 따라 중국 전통문화의 본래 뜻을 제멋대로 왜곡 하였다. 유학(儒學)을 연구하는 자들이 공자를 비판하고, 도학(道學)을 연구하는 자들이 로자(老子)를 비판하였으며, ‘반동’, ‘봉건미신’, ‘우매하고 락후하다’는 등의 모자를 씌워 중국문화를 한푼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짓밟았으며, 또 그의 한 발을 ‘치욕의 기둥’에 올려 놓도록 하였다. 공산당통치하에 중국에서는 ‘지식’이 죄로 변했다. 이것은 중국력사상 있어본 적이 없는 일이다. 모택동은 “3 황 5 제의 신성한 일들이 천애(天涯) 길손을 속였다.”고 하였다. 5천년 중국 전통문화는 신이 문화를 전해 내려온 흔적과 수련중의 신기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였다. 중공은 근근히 ‘유심론’과 피비린 통치수단으로 짧디짧은 몇십년 동안 전면적으로 전통문화를 부정하고 사회에 재앙을 입혔다. 민중들은 핍박에 의해 인류를 반대하고 우주를 반대하는 사악한 리론에 전면 세뇌당했다.

진선인국제미술전람회 토리노에서 개최

최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한 켄싼런국제미술전람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에 대한 농후한 흥취를 자아냈다. 전시된 매폭 그림마다 파룬궁 진상을 알렸고 참관자들의 흥금을 울려주었다.



미술전람작품: 광명과 암흑



토 | 막 | 소 | 식

- 지난 6월 3일부터 3일동안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열린 파룬궁심득교류회가 원만히 결속되었다. 이 기간 파룬궁학원들은 초불로 밤을 새우며 파룬궁수난자에 대해 애도를 표시했고 단체련공도 했으며 시위행진도 했다.
- 금년 5월 라트비아문자로 <파룬궁> 책을 출판발행했다. 지금 이 책은 30여개 나라문자로 번역되어 전세계에 널리 전파되었다.

진상조사단은 중국국가주석 호금도(胡锦涛)、총리 온가보(温家宝)께 편지를 띄워 파룬궁박해정지 시간표를 열거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과 캐나다 전 국회의원 데이비드-길고어는 중국국가주석 호금도(胡锦涛)와 국무원 총리 온가보(温家宝)께 편지를 띄워 그들이 2 개월내에 파룬궁군중단체와 변호사 고지성 등 량심적인 정의인사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할것을 희망했으며 올림픽과 <반인류죄>에 속하는 박해가 중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은 전 인류의 수치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 편지는 박해정지시간표를 알려주었는바 금년 8 월 8 일 까지이다. 만일 박해를 계속된다면 300 여명 성원을 가진 진상조사단은 전세계에서 올림픽운동을 제지시킬 방안을 실시할 것이다. 이 편지는 <국제올림픽운동위원회> 및 중국주재 북아메리, 유럽, 아세아, 오스트레일리아 각국 대사관에 편지의 사본을 보낼 것이다.



위에 사진은 데이비드 길고어 (우에 왼쪽)와 유럽, 아세아, 오스트레일리아, 북아메리카 4 대 분단 단장들이다.

고금의 기석(奇石)·천상(天象)의 변화

기석의 이상한 현상은 력사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오늘에도 나타났다. 자고로 기석이 세상에 나타나면 인간에 꼭 큰일이 발생하게 된다.

1. 《진시황이 죽으면 땅은 분할된다.》

진시황이 죽기전에 하늘에서 한덩이 큰 운석이 떨어졌는데 운석에 《진시황이 죽으면 땅은 분할된다.》는 글이 씌어져 있었다. 누가 썼는가를 조사해내지 못한 진시황은 운석 주위에서 사는 사람들을 몽땅 죽여버렸다. 운석에 씌어져 있는 이 한 마디 말은 하늘의 예언이기에 진시황은 재빨리 죽었고 멸망했던 6 국은 분분히 되살아났다. 과연 《진시황이 죽으면 땅은 분할된다.》는 말이 맞았다.

2. 《외눈박이 돌사람이 황하를 도발하여 천하를 뒤엎다.》

원나라 정년에 이르러 황하가 범람했다. 재상 탈탈이 가로를 파건하여 13 지역의 농부들을 끌어 모아 황하를 다스렸다. 수로를 닦을 때 외눈박이 돌사람을 파냈는데, 《외눈박이 돌사람이 황하를 도발하여 천하를 뒤엎다.》는 글발이 씌어져있었다. 뒤이어 농민 봉기가 전면 폭발했다.

3. 길림의 운석비(隕石雨)

1976 년 3 월 8 일 오후 3 시 1 분, 길림지역 사방 500 킬로미터 범위내에 한차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운석비가 떨어졌다. 그때 상공에 큰 불덩이가 나타나더니 어느새 3 등분으로 갈라지면서 3 덩이 큰 돌과 헤아릴수 없이 수많은 작은 운석들이 쏟아졌다. 민간에 류전되는 운석비는 100 년에 한번 만나기 어려운데 대인물의 수명이 끝날 때 대응된다고 한다. 과연 주은래, 주덕, 모택동모두 1976 년에 사망되었다. 작은

운석덩이는 당산(唐山)대지진에 대응되어 24 만명이 죽었고 16 만명이 중상을 입었다.

4. 림주 태행산의 저규석(猪叫石)

림주 태향산 대협곡에 자리잡은 석판암향에는 돼지소리 내는 신기한 돌이 있다. 이 몇백년 세월의 비바람속에서 매번 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례를 들면 명나라 말엽 리자성의 봉기, 청정부의 도살, 8 국련합군이 중국을 침입, 2 차세계대전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 문화대혁명, 사스병 등등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때면 이 돌은 예언가마냥 돼지소리로 미리 사람들을 알려 주었다.



요즘 이 돌은 몇번이나 돼지소리를 내곤 하였다. 이 소리는 과연 하늘이 중공을 멸망을 알리는 우렁찬 웨침일 것이다.

5. 귀주 평당현 장포향 망공석(亡共石)

2002 년 6 월, 귀주평당현 장포풍경구에서 2 억 7 천만년전의 “장자석(藏字石)”을 발견했는데 터져나온 거석 절단면에 큰 한자로 <중국공산당망 (中国共产党亡)> 이라고 씌어져 있다. 중공은 망자를 지워버린 사진을 풍경구의 유람문표에 찍어 <구성석(救星石)> 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또한 참관하러 온 유람객들은 이 망공석을 보기만 할뿐 의론하지 못한다는 규정까지 지었다. 공산당의 멸망은 하늘의 뜻이니 누가 감히 거역할수 있겠는가 ?

